

# “목포 5味 맛보고 전설따라 한바퀴”

### 시, 해양문화축제 아이디어 공모 213건 발굴

### “전문가 초청·제안 반영 목포 정체성 살릴것”

매년 8월 열리는 ‘목포 해양문화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 개최장소의 다변화와 함께 목포만이 갖는 정체성을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목포 해양문화축제’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213건이 접수됐다.

공모된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선창 경매체험과 함께하는 놀이

행 ▲각양각색의 선박을 바다에 띄워 놓고 관광객들이 선박에 승선하는 체험 ▲삼학도 수로를 활용한 프로그램 등 해양의 이미지를 살린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시됐다.

또 목포 음식문화를 축제에 접목시킨 ‘목포 5미 체험’, 다산목·삼학도·애기바위 등 목포의 전설을 재구성한 4 가지 이야기 마당을 직접 체험하는 ‘목포 전설투어’, 목포의 역사인 ‘멜라롱 다리 만들기 체험’ 등 이색적인 아이디어도 눈길을 끌

었다. 이어 종교적인 이유로 그동안 개최되지 못한 ‘전국 풍어제’를 개최해 해양문화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인기를 반영한 ‘해(海)를 품은 연(燕)’날리기 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도 접수됐다. 일반 연이 아닌 흥어(가오리) 연, 문어·낙지연, 갈매기연 등 바다를 매개로 하는 연으로 참여를 제한하면 나름 의미가 있다는 게 포인트다.

특히 그동안 평화광장과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해 온 축제를 유달산·대반동·북항 등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해양관광문화 특구’와 일치해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양관광문화 특구로 지정은 돼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행사 한번 개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목포시 관광기획과 관계자는 “목포만의 전통적인 해양문화를 나타냄으로써 축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축제전문가를 초청해 축제기본계획 설명 및 축제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공모된 제안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축제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목포 해양문화축제는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평화광장, 평화바다,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o@

# 함평 보조퇴비 공급 잠음 확산

### 업체 일방 선정해 알선료 챙겨... 당국 제재 필요

함평지역에 양질의 유기질비료와 퇴비를 공급하기 위한 보조사업 선정 방식이 제품 품질보다는 몇몇 사람에게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어<광주일보 1월 30일 10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농림부 지침에 의해 농가에서 직접 신청하는 비료 및 퇴비를 직접 신청, 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나산면 일부 농가들은 퇴비 1만포대를 신청했다가 뒤늦게 음식물 폐기물이 섞인 가축분 불량퇴비라

는 사실을 알고 다른 제품으로 대신 청해야 했다.

특히 해당농협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제품 문제가 되자 농가의 자발적 재신청이 아닌 이 제품을 영입한 A씨의 타 회사 제품으로 재신청을 받으려해 물의를 빚었다.

더욱이 농가에서 1차 신청한 제품은 농촌진흥청의 단속에 적발돼 영입 금지 3월에 참여제한 2년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2월 1일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전국 각 부처에 문서로 통보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기질비료와 퇴비 선정방법이 제품의 품질보다는 몇몇 주변의 특정인들과 판매영업 사장들에 의해 선정되는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판매영업 사장들은 대부분 사무실도 없이 여러 회사의 제품들을 가지고 핸드폰으로 영업하면서 알선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B(나산면)씨는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지도 점검이 절실하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주어 농가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 목포대 의대유치 100만 서명운동

### 오늘 시민문화체육센터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전남도민이 힘을 모은다.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최태욱)는 14일 오후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도민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한다.

‘국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전라남도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박준영

전남지사, 정종득 목포시장 등 도내 자치단체장과 박지원 이윤석 국회의원, 상공인 등 1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은 학생·도민대표의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결의문’ 낭독과 주요 참석인사들의 서명순으로 진행된다.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는 목포대 홈페이지(mokpo.ac.kr)와 서명운동 창(sign.mokpo.ac.kr)에서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능하다. 고석구 목포대 총장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전국 최고령과 지역으로 지역민이 각종 만성질환과 농어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유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12월 2일 ‘다도해 지역 등의 의료 기반 조성을 위해 목포대에 의과대학 개설과 대학병원 건립’을 공약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ilee@

### 해남군 한우 암소 감축 지원

해남군이 산지 한우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농가를 위한 한우암소 감축장려금을 지원한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축산농가가 감축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도축일자 기준으로 송아지를 낳은 적이 없는 암소는 24개월령 이내(미경산우), 송아지를 낳은 적이 있는 암소는 45개월령 이내(경산우)를 대상으로 감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이모색(털색깔이 다름) ▲흑비경 발현우(우에 검은색이 섞인 한우) ▲2등급 이하 거세수소 생산암소 등을 포함하며, 비출산 ‘미경산우’는 50만원, 경산우는 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푸른 산·바다 둘러보며 걷는 즐거움

### 완도군 4월 한달간 청산도 슬로 걷기축제



해보다 7일 연장했다. 또 느낌의 메시지가 널리 퍼지는 ‘느림의 중’ 타종식과 ‘슬로시티’ 청산도 조형물 제막식이 14일 열린다. 한편 자세한 축제행사는 축제 홈페이지 (www.slowcitywando.com)와 청산도 공식 블로그 (www.slowcitycheongsand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 예약·문의(청산도 슬로시티지회 사무실 061-550-5407)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unjung@

“느림은 행복입니다.”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에서 ‘느림의 미학’을 만끽할 수 있는 걷기축제가 펼쳐진다.

완도군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청산도에서 ‘느림은 행복이다’라는 주제로 ‘2012 청산도 슬로 걷기축제’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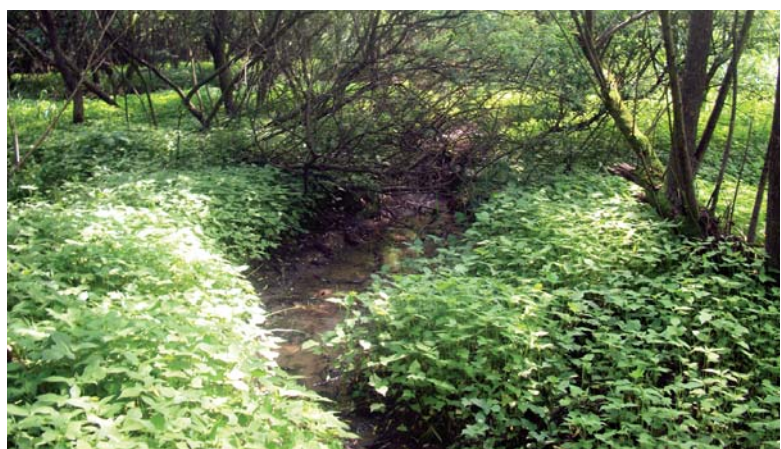
이번 축제는 국제 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세계 슬로길 1호’로 인증받은 슬로길(11코스 · 42.195km)에서 온전히 걸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걷기’를 테마로 한 전국 최초의 축제로 지난해 7만여명이 찾았다. 이번 축제는 느림의 행복을 오래 즐길 수 있도록 축제기간을 지난

# 전북

# 전주 시내버스 부분 파업

### 운행률 50% 시민 불편... 노조 “점차 수위 높일것”



### 고창 갯벌·운곡습지 유네스코 등재 추진

고창군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고창갯벌과 운곡습지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한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국제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생태계 지역이다. 국내에서는 설악산 국립공원,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이 등재됐다.

지난 2010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고창갯벌’은 다양한 저서동물과 염생식물이 자생하고 흰물떼새, 민물도요, 큰고니 같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해 보전 가치가 높다. ‘운곡습지’는 폐농경지가 자연적으로

로 복원된 내륙습지로 549종의 야생 동식물이 살며 2011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

고창군은 두 곳에 대해 전문가 답사와 기초조사를 의뢰해 “자연환경과 생태학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올해 9월에 보전지역 신청을 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면 청정지역 이미지가 부각되고 친환경적 농산물로 인정받아 생태관광과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시내버스 노조가 13일 부분파업에 돌입,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주시내버스 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출차 거부 투쟁을 마치고 이날 자하는 이날 오전 6~8시 버스운행을 하지 않는 출차 거부투쟁을 벌였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8시까지 시내버스 149대와 전주시에서 투입한 대체버스 50대 등 총 199대가 운행, 버스 운행률은 50%에 그쳤다.

오전 8시부터 부분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정상근무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100% 운행률을 보였다.

전주시내버스 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출차 거부 투쟁을 마치고 이날 오전 9시까지 전주시 덕진구 공설운동장에서 ‘버스파업 승리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전주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행진했다.

남상훈 민주버스본부 전북지회장은 “임금단체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면서 “점차 투쟁수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전주시장은 13일 전주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송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노사가 어떤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더라도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더는 시민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생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내에 운행을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단신

### 도, 영화감독 등 10명에 창작공간 제공

전북도가 영화감독과 작가 등 10명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한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도내를 배경으로 한 영화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감독이나 작가에게 회의나 작품 구상 등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디렉터스 존’(Director's Zone)을 최대 3개월간 제공한다.

올해 사업에는 38명이 신청해 송재용·문지영·유상현·이성준·박영훈·윤정임·이승환·최선아·오경현·김태운 등 10명이 선정됐다.

도는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지원하는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도 벌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항만청, 봄맞이 바닷가 대청소

봄철을 맞아 군산 앞바다에서 대청소가 실시된다. 군산 지방해양항만청은 15일 오후 2~5시 군산내항과 도선장 일대 육지와 해상에서 군산해경, 시청, 해양환경관리공단, 수협, 지역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봄 맞이 바닷가 대

청소’를 실시한다. 군산항만청은 “지난 겨울 동안 군산·장항 해안가에 쌓인 해양쓰레기를 말끔히 수거함으로써 국민에게 ‘가고픈 바닷가’, ‘겉고 싶은 해안’이란 인식을 심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정읍시, 16일 법륜스님 초청 ‘시민행복 특강’

정읍시는 오는 16일 오후 7시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법륜스님을 초청해 ‘시민행복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는 삶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청중이 묻고 바로 답변을 해주는 ‘즉문즉설’ 형식으로 진행된다. 질문자와 상담자,

청중 모두에게 열린 대화와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륜 스님은 1988년 정토회를 설립하고, 2004년 평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기아·질병·문맹 퇴치·인권·평화·통일·생태환경 운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parks@

### 김제경찰, 학교폭력 추방 토론회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최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장전배 전북 지방경찰청장 과 전북청 지휘부, 직원, 오피니언리더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해결방안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김제 교통문화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시청하고, 참석자 패밀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

# “독립 만세” 함성 다시 한번

### 김제시, 19일 원평장터서 운동 재현

93년전인 1919년 3월 19일 김제시 금산면 원평장터에서 터져 나온 독립만세 함성이 다시 울린다.

김제시 금산면 지역발전협의회는 오는 19일 금산면 원평리 옛 장터에서 주민과 학생 등이 참여하는 ‘원평장터 독립만세’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원평 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일제에 항거했던 애국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해마다 열린다. 기념식,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 원평만세 재현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민과 학생 등 100여명이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당시 백성의 독립만세 활동과 함성을 재현한다.

원평 만세운동은 원평 장날에 배세동 등 8명이 장대에 대형 태극기를 달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뿌리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시작, 장보러 온 백성 수백 명이 합세했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



### 우리 가락 좋을시고~

남원시 운봉읍 화순리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국악의 성지’가 체험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에는 지난해 3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탐방객이 줄을 잇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